

1350억원 규모 소상공인 보듬는다

도, 도내 6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총 90억 특별출연 최대 2억·5년 보증, 대출금리 중 2.0% 이차보전 지원

전북자치도가 유동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1,3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농협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도내 6개 금융기관 대표

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은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1저(저성장)의 복합 경제위기 장기화 대응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미래선도형 신사업 융합 혁신 기업의 연착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북자치도와 금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았다.

출연제원은 전북특별자치도 20억, 6개 금융기관 70억원 등 총 90억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1,350억원 규모(출연금 15배수)의 보증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보듬지원(Track1)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선투자연계자금 지원 △식재산(IP)기업(Track2) △녹색(ESG)기업(Track3) 등 3개 분야로, 업체당 최대 2억원 한도로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이며, 1년간 연 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한도 소진시까지이며, 대출금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금융회사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1년부터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해 총 10,983건, 3,140억원의 보증을 지원해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비용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해 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보듬자금 금융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농협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도내 6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친환경쌀 '어린이가 직접 키워요'

도, 학교 텃밭체험 서울 어린이집·초교 100여곳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친환경 농산물 대도시권 판로 확대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친환경 농업 우수 단지를 중심으로 도농 교류 활성화 등 대도시권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 학교 텃밭체험, 소비자맞춤형 체험 활동 등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4월부터 대도시권(서울, 경기 등) 어린이집, 초등학교 100여 개소에 소규모 텃밭을 조성하고 친환경 쌀 모내기 체험 행사를 추진해 아이들이 쌀의 재배 전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가을 수확철 벼 베기, 전통 농기구를 이용한 수확체험과 학생들이 직접 수확한 쌀을 가지고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떡메치기' 체험행사 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 어린이에게 친환경농업의 이해, 환경생태 감수성과 농촌의 가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내 우수한 친환경쌀을 안정적으로 대도시권 학교급식에 확대 공급하게 된다. /김재훈 기자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은 대도시권 학생, 학부모, 선생님, 영양사, 활동가 등 720여 명이 4월부터 전북 친환경 우수 생산단지에 방문해, 유기 포도, 고구마 등 농산물 심기, 수확 체험, 유기농산물 업체 견학, 농기구를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교텃밭체험,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을 추진하는 손병철 안주 고산농협 조합장은 "해당 사업들을 통해 대도시권 학교급식 판로 확대,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의 이해도 제고 등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매우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마케팅사업으로 도시지역 학생들에게 농업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협력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올해 농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3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추진한다.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올해 농민 공익수당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양봉농가에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도내 농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결한 타시도 시·군의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양병업을 등록한 양봉농가이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별도의 농업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업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주소지 유지기간 동안에 도외 진출, 동일 주소지 중복 신청, 부정수급·불법행위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농가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사업 신청·접수가 5월까지 마무리되면, 6월부터 8월까지 신청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지급제외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유지 의무기간 중 농업경영체 갱신기간 만료로 인

한 취소와 농지 매도로 인한 경영체가 취소됐다가 6개월 이내 재등록한 경우도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농가는 예외조항으로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또한, 농업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전북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농장별 상세 기상예측정보와 작물 생육상태를 고려한 농장 재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도전장'

섬진강 유역 3개 시군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사업에 도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월 섬진강유역 3개 시·군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환경부에 지정·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뜻한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할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신청 범위는 섬진강유역으로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3개 지역 9개 하천(397㎞)이 해당되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받은

면 환경부로부터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등 관리를 받게되고, 강우유출수 등에 의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 진행시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섬진강유역 오염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강해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계기로 하천생태계를 위협하는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들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비점오염 지정신청 연구는 공무원 직접수행용역을 통해 추진됐고 공무원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특성에 맞춤형 연구진행 및 예산절감 효과에 기여하는 등 큰 의미가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봄 나들이철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하는 봄꽃 탐방시설(국·공립 공원 등), 유원지, 휴게소, 골프장 주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14개 시·군이 함께 봄꽃 탐방시설, 유원지,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 등산로 입구, 골프장, 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인근 식품취급시설과 푸드트럭 등 280여 곳

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등 위생적 관리 및 방충시설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냉장·냉동식품의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무신고 영업 및 무등록(신고)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사용·판매 여부 등이다. 김경 전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봄철 기온 상승과 큰 일교차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물 보관·관리·섭취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품취급업소 종사자에게는 꼼꼼한 식품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